

한국농어촌공사, 청계저수지서 집중호우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 저수지 붕괴 상황 가정한 실전형 훈련 진행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협력 통해 재난 대응 역량 점검

2025.05.16 17:06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新安지사가 16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청계저수지에서 집중호우를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훈련은 저수지 제당이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하거나 범람하는 비상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해 진행됐다. 공사 직원과 무안군청 관계자, 지역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

은 상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응급복구 및 지휘 체계 확립, 재난 상황 전파 등 전 과정에 걸쳐 대응 절차를 반복 숙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상황반, 대책반, 지원반, 복구반 등 대응조직의 편성과 함께, 제당 사면 슬라이딩 붕괴를 막기 위한 방수포 및 말뚝 설치 등 응급복구 작업이었다. 특히 현장 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파 체계와 협업 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계저수지는 지역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저수지 안정성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훈련을 주관한 범필재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 지역 주민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농어촌 지역의 재해 대응 체계는 결국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반복적 훈련과 협업은 그 자체로 생명선이다.

사회부/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

[인쇄하기](#) [창닫기](#)



**40대 이상이고 PC가 있으세요? 그럼 이 게임
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운로드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오늘 무료로 플레이해

Sponsored by: Sea Of Conquest

[PLAY NOW](#)